

## 나. 2013년도 고령사회대책

- 이하에서는 일본 내각부에서 발표한 「2013년도 고령사회대책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함.
  - ‘사회보장제도 개혁 국민의회’는 2012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「사회보장제도 개혁 추진법」(이하 개혁추진법)을 토대로 설치되어 주요 분야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음.
  - 동 회의는 고령자 의료제도를 포함한 의료보험제도, 간병보험제도, 공적연금제도, 저출산 대책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개혁추진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중
- (취업·연금) 개혁추진법에 입각하여 고령자의 취업 및 연금수급과 관련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
  - 고령자가 건강하고 의욕과 능력이 있다면 연령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의 핵심 기업을 모델 기업으로 선정하여 고령기의 직업생활 설계에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실시
  - 2013년부터는 기업의 고령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의 직업군 확대, 작업 환경의 개선 및 고용관리제도 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며, 이직을 원하는 고령자의 경우 직업소개사업자의 소개를 통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
  - 또한 연금수급 자격기간(납부기간)을 현재의 25년으로부터 10년으로 단축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고, 단기간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및 출산 휴가 중의 사회보험료 면제 등을 실시
- (건강·간병·의료) 고령자의 건강을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알츠하이머 병 등과 같은 특정 질병에 대한 표준 체제를 확립
  - 2012년 7월에 제정된 ‘건강 일본 21(제2차)’에 근거하여 지방 공공단체 및 관련 단체, 기업 등과 연계하여 ‘Smart Life Project’를 연속 실시함.